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최 영 표

동신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장

1. 서론
2. 남북한 교과의 통일 교육의 현황과 문제
3. 7차 교육과정상 교과의 활동으로서의 통일교육 수행기반 탐색
4.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1. 서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해방후 이념 분쟁에 휘말려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뼈아픈 과거사를 치른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롭게 응비하는 한민족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자는 당위론적인 접근 일변도를 벗어나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한때는 통일의 열망에 들떠서 북한의 실체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냥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는 식의 정치적 접근에 치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된 독일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보고 나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간의 엄청난 이질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있어야 하겠고, 빈궁한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통일 비용도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등의 경제사회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통일을 열망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한편으로 일부사회나 계층에서는 통일 성취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기도 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여 우리가 크게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북한 체제의 개혁과 민족화합을 위한 통일비용을 막대하게 부담하게 되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의 이질감이 너무 커서 통일된다고 하여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

도 가중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법과 준비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한층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5752호로 통일교육지원법('99년 8월 6일 시행)을 공포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통일교육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자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후자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은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과 교과외 통일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 부분의 통일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활동 중에서도 도덕, 국민윤리 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실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통일에 대비하는 가치관은 형성시켜줄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통일 성취에 공헌하는 행동을 길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규교과활동을 통해 길러주기 어려운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의 행동은 실제적으로 교과외 활동을 통해 형성시켜 주기 쉽게 되어 있다. 교과외 활동은 교과라는 딱딱한 굴레를 벗고 지필평가의 부담 없이 보다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조직·운영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통해 기른 지식의 바탕위에서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 교과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확고하게 길러줌으로써 통일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도 꾀하는 한편 그 효과도 높여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의 통일교육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고는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먼저 남북의 교과외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제 도입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남북의 교과외 통일교육의 현황 및 문제

가. 남한의 교과외 통일교육

남한에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외 활동으로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학교행사 및 게시물을 통한 계기교육, 훈화와 강연, 그리고 과제물을 통한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학교별로 편차가 큰 실정이다.

○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중·고등학교에서 시사연구반 또는 통일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시사연구반은 통일문제를 위시하여 시사성 있는 소식을 수집하여 주요 소식을 선정하고 시사게시판에 해설을 곁들여 게재하고, 토론의 주제로 삼기도 한다.

신문반이나 방송반 활동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 신문에 통일에 관한 정보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고정란을 두고 투고를 권장하여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방송반에서도 시사성 있는 통일 관련 내용을 다루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학교도 많다.

○ 현장학습과 수련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전망대, 북한관, 땅굴, 전직지 등을 방문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현장학습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 전에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방문후에는 방문후감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수련활동으로는 학교외부 전문기관 프로그램 참여와 교내프로그램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통일교육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학교의 생활관 등 특별교실을 사용하여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 각종 학교행사를 통한 지도

6·25 주간 행사, 학예회 및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행사를 통하여 통일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한 행사로는 통일퀴즈대회, 통일토론회, 통일글짓기, 통일표어 짓기, 통일시화전, 통일미술전, 통일연극회, 통일체전, 통일대행진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학교에 따라 북한의 또래 학생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 게시물 및 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 관련 주요 시사 소식을 정리·해설해주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북한 물품이나 북한 관련 화보, 도서자료, 영상자료 등을 전시하는 통일관을 별도 교실로 설치·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주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초청강연, VTR상연, 훈화 등을 통한 통일교육

키순인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초청강연 기회를 갖거나, TV를 통해 방영되는 북한소식을 통일교육 담당교사가 선정하여 상영하고, 해설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 교장선생님이나 윤리주임 등이 훈화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방학과제를 통한 통일교육

방학 중 과제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데 북한 내의 문화유적 조사하기, 북한관광안내도 만들기, TV의 통일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감상문 쓰기, 통일스크랩 만들기, 통일관련 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 활동 등이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든지,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는 예를 들 수 있다.¹⁾ 이와 같은 지적을 참고하여 교과외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들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개념과 목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교과외 통일교육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은 교육과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사여서 누구나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바도 크다. 통일 우선인가, 안보 우선인가 하는 논쟁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불식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통일교육을 일관성있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통일교육의 비체계성으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도덕·윤리교과외 내용상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앞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오는 문제도 크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와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의 역할분담도 확연하지 않다.

셋째, 교과외 통일교육의 접근 시각과 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제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교행사의 경우 6월의 주간 행사, 외부초빙강연, 현장답사, 통일대행진

1) 통일교육 방향성이 모호하다(50%), 통일교육이 비체계적이다(21%)는 지적,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통일정책 홍보에 치중한다(46%), 남북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23%) 등의 지적을 들 수 있다. 이우영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1997. 11, 85~88쪽

등의 행사를 실시할 때 학교 실정이나 주관하는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중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표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교과외 교육은 최대한 참여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전문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자의 시각의 차이와 시간상의 제약도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수·학습자료의 제한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특히 북한의 1차 자료가 절대 부족한 뿐만 아니라 입수하기도 어렵다. 통일에 관한 시사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도 예전보다는 구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풍부하게 개발·보급되고 있지 못하다. 중·고교 교사의 14.8%만이 로동신문을 본 적이 있으며 북한영화는 28.7%, 북한잡지는 13.0%만이 접한 경험이 있다. 상급기관이 배포한 자료의 이용도 29.6%에 불과한 실정이다.²⁾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연수기회가 미흡한 것도 큰 문제로 부각된다. 통일교육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참여도가 낮다. 특히 교수 과목이 분화되어 있는 중·고교에서 관련 없다고 회피하거나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일환경이 급변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통일교육관련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하여야 함에도 연수기회가 미흡하여 전문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 지원체제가 미흡한 것도 큰 문제이다. 교과외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활용하는 체제도 수립되고, 행사경비와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선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지원체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신 자료 지원체제와 귀순자 활용기회도 미흡하고, 행사경비나 인력도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못하다.

나. 북한의 통일관련 과외교육³⁾

북한은 정규 교과활동 외에도 특별활동에 속하는 과외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과외활동은 소년단과 사로칭의 조직생활을 통한 과외활동, 그리고 교과활동이 끝나는 오후에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소조활동 및 각종 정치학습, 노동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과정안에는 이러한 과외활동을 공식적

2) 이순교,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도덕·국민윤리 교과와 담당교육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참조

3) 최영표, '북한의 중등교육체제 분석', 통일교육학회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 「북한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9년 10월 참조.

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북한 고등중학교 학업계획

학년	수업 주수	시험 주수	현행당정책 수업주수	실습 주수	견학 주수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주수	생산노동 일수	방학 일수
1	36	2					30	53
2	36	2					30	53
3	36	2					30	53
4	32	3	1				45	53
5	29	3	1	2	1	(1)	45	53
6	25	3	1	3	(1)	1	60	53
계	194	15	3	5	1	1	240	298

자료 : 북한 교육위원회, 「과점안」, 1983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 견학, 붉은 청년근위대 활동, 생산노동 등의 과외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교과활동 외의 과외활동이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로청 활동(고등중학교 5학년~30세)

사로청(사회주의청년동맹)⁴⁾은 집단주의에 바탕한 당 하위 조직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층은 14~30세까지로 되어 있어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 중 소년단 생활을 하였거나 기타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이었던 학생이면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되어 30세가 될 때까지 맹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사로청은 당의 후비대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정치학습 조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학생들을 조직생활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함양하고, 반제, 반일투쟁을 선전선동하며, 김일성 혁명전통의 교양사업을 지도하고, 계급 교양 사업을 지도한다. 이외에도 학생의무노동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교외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으로서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과업도 수행한다.⁵⁾

이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학교에는 학교사로청 위원회가 있으며, 학급별로는 초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초급위원회 산하에 10여명씩으로 조직된 분조가 설치되어 있다.

4) 1996년 1월부터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5) 동영준, “나는 청년시절과 사로청 활동은 이러하였다”, 최영표 외편, 「내가 받은 북한교육」, 한국 교육개발원, 1994, 120~141쪽 참조.

붉은청년근위대는 사로칭 조직에 있는 군사단체이다. 군사체계상으로는 민방위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만14세~16세까지의 남녀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내무제식훈련과 사격훈련, 행군, 공업시설물의 방어훈련을 주요 훈련내용으로 한다. 보통 1년에 1개월 정도씩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에는 실탄사격까지 하게 되며, 군관들의 엄격한 통제와 선생들의 협조 하에 진행된다.

○ 小組活動

소조활동은 방과 후 소그룹별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학소조, 물리소조, 미술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 등 각 과목별로 10여개의 소조가 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소조를 택해 주로 실험실이나 음악실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된다.

각 과목별 소조에는 지도 교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수업을 받고 그날 수업한 상황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기도 하며, 소조 학생 책임자가 책임지고 지도하기도 한다. 한 소조에는 1-6학년의 학생들이 20~40명 정도씩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과제를 주고 소조 지도 교원의 계획에 따라 높은 학년 학생들이 낮은 학년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시험을 쳐서 교제로 채점하는 방법으로 또는 한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에 붙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 정치학습활동

- 생활총화

생활총화는 1주일에 한번 하는 주 생활총화, 월에 하는 월 생활총화, 또 분기 생활총화, 년간 생활총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철저히 관찰하자는 식의 분단총화가 있다. 이것은 다 분단 지도교원인 담임교원의 사회화에 분단위원장이 집행한다.

생활총화시 김정일의 지시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하고 주간생활에서 제일 큰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기의 생활을 총화한 다음에는 꼭 상호비판을 하여야 한다. 상호비판이 준비되지 못하면 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다.⁶⁾

- 기타활동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창대 활동, 규찰대 활동, 혁명 유적지 답사 활동, 그리고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를 기해 실시되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운동 등 각종 정치활동에 동원된다. 이 외에도 한 학교의 정례적인 행사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과외활동으로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월요학습, 수요일강연회, 정치학습 등이 있다.

6)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KEDI CR 98-23, 136쪽.

북한의 교과외 활동은 북한의 교육목적과 사회주의 체제 이념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북한체제가 공산주의 혁명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의 수단으로 역할 하는 성격이 무척 강하다.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정치 우선론의 관점, 그리고 개인은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없고, 집단만이 생명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집단주의적 관점이 철저히 배어 있다.

정치 우선론의 관점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 사상교육을 첫 번째로 중시한다. 소년단과 사로청 활동, 그리고 각종 생활 총화 학습 등 정치 학습활동은 바로 정치사상 교육의 소산이다. 집단주의 관점 또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입니다.'라는 선언이 말해 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관점이 생활화되어 있다. 특히 집단생활인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고 하여 정치사상 교양을 쌓고 혁명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으로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이 중심으로 되는 과외활동이 철저히 집단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남북의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실태를 살펴볼 때 통일의 길이 선뜻 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남북체제의 이질성으로부터 오는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같은 핏줄을 나눈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한은 개인주의적이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우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집단주의적이고 공산혁명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우선론의 입장을 견지한 사회주의 성격을 강력히 띠고 있다.

3. 제7차 교육과정상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통일교육 수행 기반 탐색

가. 교육과정의 편제로 본 교과외 통일교육

먼저 교과외 통일교육과 관련 지을 수 있는 7차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주로 고교 2·3학년에서 제공한다.

재량 활동은 주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중등학교의 선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 활동은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인 자치 활동, 학생이 선택하는

활동인 적응 활동, 동호 활동, 심화 활동, 봉사 활동, 학교가 주관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인 수련 활동, 행사 활동 등 7가지 영역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 2> 국민 공통 기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구분 \ 학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과 활동	생 략										선택과목	
재량 활동	60 (2)	68 (2)	68 (2)	68 (2)	68 (2)	68 (2)	136 (4)	136 (4)	136 (4)	136 (4)		
특별 활동	30 (1)	34 (1)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8단위	
연간수업사수 (주당 수업사수)	830 (25)	850 (25)	986 (29)	986 (29)	1,088 (32)	1,088 (32)	1,156 (34)	1,156 (34)	1,156 (34)	1,224 (36)	144단위	

이상의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논의해 보면, 통일교육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10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교육과정으로는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교과상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량 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또한 특별 활동에서도 각종 자치 활동, 동호 활동, 수련 활동, 행사 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초등학교 3~6학년 주당 1시간, 중학교 1~2학년 2시간, 3학년 1시간, 고등학교 1시간 등으로 배정되어 있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주당 수업 시간 수에서는 줄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화·보충교육이 가능한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량활동에서의 통일 교육

학교급별로 재량활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량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통일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이 시간에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교과학습의 보충·심화를 위한 재량활동은 통일교육에서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이므로 교육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범 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제 탐구 활동에서도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탐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타 자율적 교육 활동에서 현장 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자율적 교육 활동으로서 역사유적지, 전쟁 사적지, 통일 관련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예컨대,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 견학, 전쟁기념관, 자매 군부대, 참전기념비, 북한관 등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영역을 몇 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재량 활동시간에 통일 교육 관련 수업을 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통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교육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4.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가. 기본방향

첫째, 통일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학생들이 통일의 주역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외 활동은 통일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능력은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교과적이고 시사성 있는 통합성 통일주제를 설정하고 교과외 활동영역별로 모듈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교과외 통일교육이 중점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교과외 통일교육이 수행하여야 할 통일주제를 설정하고 교과외 활동영역별로 모듈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통일 주제는 앞서 언급한 통일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교과적이고 시사성을 지닌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방적인 풍토위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주의를 우선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 의지와 신념을 길러 나갈려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가 교과외 통일교육을 수행할 때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넷째, 학교단위, 지역단위별로 가칭 '통일동아리' 양성을 위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통일 의지를 내면화하고 이에 대한 성취감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은 통일의 역군이 될 가칭 '통일동아리'를 길러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필요시 인증서나 시상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과외 통일교육은 외부전문기관, 관련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통일 교육은 전문성이 강하며 시사성을 지닌 수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들 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체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활성화 방안

1) 특별활동 및 자치활동의 적극 활용

① 통일반, 또는 통일 동아리를 적극 육성한다!

통일문제에 흥미와 관심을 지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통일반 또는 통일동아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동아리 활동은 중등학교생에게 더 적합할 것이다. 이 집단은 통일반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거점으로 삼아 시사성 있는 통일 소식을 수집, 정리하고 통일시사판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심있는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이 어느 정도 규모에 오르면 지역내 또는 지역간을 연계하여 흥미있는 통일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신문, 방송매체 관련반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다루도록 한다!

많은 학교가 신문반, 또는 시사연구반, 방송반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다루도록 한다. 시사성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지라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통일문제를 주요 이슈로 설정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매체는 학교생활 중에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통일 의지와 신념을 함양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학교 정기 행사의 다각적인 활용

[6.25 주간행사 이외에도 학예회,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행사시에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포함하여 다룬다.]

대부분의 학교는 통일문제 중심의 6.25 주간 행사를 갖고 있으며, 규모있게 학예회나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6.25주간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학예회나 체육대회 또는 수련회 때도 통일문제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문제라 하더라도 각색만 잘 한다면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왔던 통일 글짓기, 또는 백일장, 통일 미술전, 통일표어짓기, 통일시화전, 통일웅변대회도 포함된다. 수준을 조금 높여 통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통일 관련 관심있는 주제를 2~3개 설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원고로 제출하도록 한 후 우수작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발표토록 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학예회때 통일 관련 촌극발표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의 남북의 이질화 되어 있는, 또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실상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 통일 후의 가장 현실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촌극은 체험학습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효과가 매우 크다.

체육대회때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의 민속놀이를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 통일마라톤 경기, 또는 통일대행군 등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학교들이 연합하여 통일체전을 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으로 수련회를 가질 때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요즈음은 수련기관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니까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련회때는 학교현장을 떠나 극기 훈련을 통해 정신훈련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통일대행군 등의 이름으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퀴즈 놀이는 각종 행사시에 어느 때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상 또는 북한에서 최근 쓰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이벤트성 행사의 주기적 개최

[·북한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영화나 VTR을 주기적으로 상연하고, 자료 순회전도 갖도록 한다.]

학교현장의 교사가 집하기 어려운 북한 영화나 시사성있는 VTR을 주기적으로 상연해주도록 하며, 일선에서 보기 어려운 북한의 교과서, 학용품, 일상생활용품 등을 구비하여 순회전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 영화는 통일부가 직접 관장하여 대학의 통일문제연구소의 요청시에만 응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발족시킬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자료 순회전은 전용차를 구비하여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귀순자 강연이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최근 북한사회의 일탈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귀순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통일교육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정부가 일선학교에 파견하여 강연회나 간담회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 학교통일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 변방 기행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광주, 전남지역 학교들도 중국지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변방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어 실제로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길림성 지역은 조선족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의사소통도 되므로 별 어려움 없이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고 통일의 신념과 의지를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평통의 통일교실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민주평통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각 시·군단위별로 지도급 인사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장에 나가 통일교실을 열고 있다.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통일교실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통일관의 내실있는 운영

[·학생들이 학교의 통일관을 쉽게 접하고, 통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한다.]

모든 교사가 통일교육요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전문성 있는 담당 교사가 통일관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미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발족할 '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가상하여 충분한 컴퓨터를 장치하고 활용하도록 하며, 흥미있는 프로그램도 띄워

놓아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방학 중 과제학습의 적극 활용

방학중에도 큰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1가지 이상의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지만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긴 방학 중에 통일에 대해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다. TV관련 프로그램인 통일의 길(EBS), 통일전망대(MBC), 남북의 창(KBS) 등을 시청하고 시청내용과 감상문을 쓰도록 한다든지, 수준에 맞게 통일 스크랩을 하고 후감을 써오도록 한다든지, 또는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 오도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북한 관광 안내도, 북한 용어 모음, 북한 문화유적 모음 등의 주제성 과제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원 조 치

학교의 교과외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가칭 '학교 통일교육 지원 협의회'를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학교 현장의 교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교과외 통일교육을 규모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루트도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윤리주임, 통일교육전문가, 통일관련전문조직요원, 교육행정기관 담당자들을 포함한 가칭 '학교통일교육 지원협의회'를 조직·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새로 수립될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둘째, 가칭 '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조기에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사회가 급변하는지라 통일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적인 문제이외에 전문성있는 자만이 올바르게 해설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 접근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관하여 가칭 '통일교육센터'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조기에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교원 연수원에 통일교육 지역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통일에 관심있는 지역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부설한 사회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에 통일교육 지역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조기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빨리 규정을 마련하여 학점인정도 받도록 하고 승인 시에도 인정되도록 한다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육지원법이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 당국은 통일교육 비용을 우선 배정하는 점도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교과외 통일교육을 규모있게 수행하고 싶지만 예산 배정이 안되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과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관련 비용을 우선 배정해 주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 박순영 외,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7
- 이순교, '학교통일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이우영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1997
- 최완규 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1996
-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정책연구」, 1996. 1~54쪽
- , '북한의 중등교육체제 분석', 통일교육학회, 「북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세미나 자료, 1999. 10.
- , '통일을 대비한 우리 교육', 한국장학회, 범송 제 6호, 1995. 26~29쪽
- 외 편, 내가 받은 북한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 한만길,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통일 교육 방안 모색」, 1997, 25~54쪽
- ,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자료, 1996
- 외,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97-61
- 통일 교육원, 통일교육 교수기법, 1999
- 통일부,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 방향, 1998
- , 통일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 1999. 6, 제1차 통일 교육발전 워크샵 자료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예시

정 석 흥

전남대 객원교수

1. 총 평

우리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안보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바뀌면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 그 기조에서는 지금도 반공, 안보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요구하는 요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이 계속 남한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결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그 긴장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소는 적대감정을 계속 잔류시키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적임과 동시에 동포라는 2중적 인식을 갖게하여 안보상황에 따라 북한을 보는 눈이 판이하게 나타나며 대북관의 혼란을 표출한다.

둘째는 남북한의 대결관계는 남북한의 경쟁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게된다.

셋째는 한국의 대북한관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데 여기에 진보적 입장이 강화되면서 대북관이 보수-진보로 양분, 대립되면서 청년 학생들이 진보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교육의 입장은 보수성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의 사고에 혼란을 주고 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넷째는 통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배제하며, 동포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남북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통일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해야 민족의 번영과 행복이 약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통일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은 마치 승공통일, 흡수통일로 비판될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으나 북한이 연방제 통일론을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통일론으로 공론화하려고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통일론도 한반도 통일론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론을 내세운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흡수통일의 우려를 자아낸다는 식은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과 같이 우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없는 한 통일교

육도 감상적인 통일교육에서 벗어 날 수 없다.

2. 남북의 교과외 통일교육의 현황 및 문제

가. 남한의 교과외 통일교육

남한의 교과외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조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소개는 있으나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유형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일반적으로 가장 권장할만한 방법이라는 하나 통일교육 자체가 입시 수능시험에서 중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의 열성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료수집 등에서 체계성이 없고 그 내용도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개념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생들의 관심도 먼 편이므로 전시성·형식성에 흘러 실제 교육 효과면에서는 의문시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들의 체계적 지도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현장학습과 수련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이러한 방법은 살아 있는 교육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에 속하나 현장 학습은 통일교육 현장보다도 안보교육 현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따라서 인솔교사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현장교육에 대한 교안도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3) 각종 학교행사를 통한 지도

특히 글짓기·표어 짓기·미술전 등 학과에 연결된 과목은 학기 성적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기관장 등의 표창장 시상도 필요하다.

(4) 게시물 및 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부나 통일교육원 등에서 게시물과 통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5) 초청강연·VTR 상영·훈화 등을 통한 통일교육

귀순자 초청강연·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의 경우 북한을 고정관념에서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안보정신이 강조되는 등 통일교육에 다소 어긋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한다. 강사의 성향에 따라 정부의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3. 통일이전의 서독 통일교육의 참고

통일이전의 서독에서의 통일교육은 학교·사회교육이 일체성을 갖고 추진되었으며 특히 매스컴의 참여나 각종 사회단체·시민단체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종합적 체계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독의 경우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이 아쉽다.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체계화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협의회 등이 구성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특히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된 독일이 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체제이며 ②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이고 ③ 사회·문화적으로 독일 민족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교육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그것은 마치 “흡수통일”이고 “승공통일”로 비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없는 통일교육 때문에 통일관이 감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적어도 통일을 생각한다면 통일국가에 대한 확실한 이상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관”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우리의 통일관은 과연 무엇인가?

서독에서는 곳곳에 통일을 염원하는 심분을 설치해서 통일의 열망을 키웠다. 우리 학교나 공원에도 이런 심분의 설치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 한편에 우리 나라 지도 만들어 놓기, 이런 시설은 공원 등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 정원에 “큰 돌 두 개를 철사줄로 묶어 논다”든가 “뽕나무 두 개를 철사로 묶어 두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이어야 한다” 등의 구호도 같이 써 놓을 필요가 있다.

4.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최영표 교수의 활성화 방안 제시가 구체적이고 그 문제점 해결까지 제시된 점은 좋은 제안이다.

여기서 몇가지 참고해 불만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통일의 의지를 개발하고,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1년 내내 간단없이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나 청소년들의 속성상 집중성의 상실로 자칫 형식화에 흐르기 쉽다.

따라서 “평화통일기원 주간”(6·25가 들어 있는 주간) 또는 “평화통일기원 월간”(6·25-7·27)을 설정, 중요 행사는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북한이 6.25에서 7.27까지 전승기념 월간으로 설정, 대대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기원 주간은 축제 형식으로 추진하면 청소년들의 마음에 평화통일의 의지와 신념을 깊이 새길 수가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학예회·통일경연대회·통일행진(시가) 등을 실시한다.

5. 끝으로

통일교육은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노선에 변화가 없고 그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반도 유일 통일방안으로 공론화시키려고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는 한 통일교육은 이념교육의 차원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도 통일교육의 목표 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 당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피동적인 교육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민족에의 소속감 증진 및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과외 활동

박 형 중
통일연구원

1. 서론

o 발제문은

- 통일교육의 실천방법으로서 교과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활성화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
- 교과외 활동의 여러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o 이 논문의 논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론과 반론을 전개한다.

1. 이 논문은 교과외 통일교육 활동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즉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인가에 대하여 명시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통일박두론”과 “흙수통일론”인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통일론은 현 남북한의 정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통일협오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교과외 활동의 목적은 물론 “통일에의 신념과 의지 함양”이기도 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교육과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3. 교과외 통일활동의 목적 부합성 여부의 문제

3.1 통일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들과 방법들이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남북한의 이질감과 적대의식을 확인·확대시켜주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3.2 통일교육에서 사용되는 논리와 방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있)다는 것을 확

인시키며 경험하게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남북한의 현실적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3. 이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교과외 활동은 교육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따라 위의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숙고와 토론이 필요하다.

II 이 논문의 목시적 전제인 통일박두론 및 흡수 통일론

- 통일교육지원법 자체뿐만아니라, 이것의 실천을 논의하는 통일교육 관련 여러 논문과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통일'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
- 이러한 논법은 '통일'개념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통일"개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여기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2개의 "통일"관의 논리 전개와 통일 개념 등을 구별하고, 이 논문이 목시적으로 통일박두론과 흡수통일론에 기반하여 교과외 통일활동을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함.

1. 2개의 대표적 "통일"관

- 여러 문헌을 검토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개념과 관련한 의견 대립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로 구별될 수 있음.

	견해 1	견해 2
통일의 시기	북한붕괴 박두=통일박두	북한장기존속 =통일은 당면과제가 아님
당면 과제	박두한 통일준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형성
통일의 방법	흡수통일 (단기 당면과제)	남북연합 형성(중장기 당면과제)
통일의 형태	국가·체제·법적으로 완전 통일	민족통일, “사실상의 통일” (궁극목표는 국가·체제·법적 완전통일)

-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관에는 이러한 두개의 견해가 혼재하여 있지만,
- 「견해 1」은 김영삼 정부시대의 통일론에 가까우며, 현재에도 통일교육을 논의하는 여러 글들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견해 2」는 김대중 정부 시대의 통일론에 가까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추구하는 견해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 이하에서 「견해 1」을 ‘흡수통일박두론’으로, 「견해 2」를 ‘사실상의 통일론’으로 칭한다.

2. 흡수통일박두론의 논리와 통일교육관

○ 논리전개

- 한반도의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좋은 삶든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제기된다. 통일은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 통일준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진할 필요. 국민들은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나가야 한다.
- 통일은 국토도 하나 (국토통일), 제도도 하나 (정치적 통일), 민족도 하나 (민족통일), 생활도 하나 (경제·사회·문화적 통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통일교육

- 통일준비교육: 통일추진과정과 통일이후의 민족사회에 나타날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정신문화적 기반요소들을 교육한다.⁷⁾

3. 사실상의 통일론

o 논리전개⁸⁾

- 북한은 이미 실패한 체제이고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만 조기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함. 만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부터 실현하는 것이 적절함. 강력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간다.
- 지금 통일하자는 주장보다 오히려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 제거에 신경을 써야함. 그것이 바로 냉전구조를 해체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마치 중국과 대만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게 하며, 대통령이 한사람이 되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o 통일교육

- “사실상의 통일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논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4. 통일협오론의 원인으로서는 “통일박두흡수통일론”적 관점

- o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통일기피론’의 원인은 기성세대가 잘못된 정세판단과 그에 입각한 (잘못된?) 통일관에 때문에 젊은 세대

7)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1999), p. 282.

8) 임동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1999.2);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방향」 (1999.7) 참조.

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 일각 특히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소위 '통일협오론'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논문의 비판적 '우려', 양자가 공히 '흡수통일 박두론'적 논리에 서있다.

- 즉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통일협오론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흡수통일론적 통일관 때문이며, 그 협오론에 대한 우려도 흡수통일 박두론에 서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임. 만약 '흡수통일론'을 배제한다면 두가지 모두 거의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임. 예를 들어, (따옴표 인용은 이 논문에서)
- 1. 주로 젊은 세대들이 “통일된 독일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보고 나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태도 자체와 그 태도에 대한 우려.
- 2.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북한 체제의 개혁과 민족화합을 위한 통일비용을 막대하게 부담하게 되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감안할 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 자체와 이러한 의견에 대한 우려.
- 3. “남북의 이질감이 너무 커서 통일된다고 하여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도 가중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III. “사실상의 통일론”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교과외 활동

○ 통일교육의 내용 및 교과외 활동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남북관계의 단 중기적 정세에 부합해야한다.

- 적어도 중기적으로 남북한이 적대상태를 유지하지만 접촉과 교류가 확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존협력 관계와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구현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그에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즉 과거의 통일교육 또는 현재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통일교육의 관점, 즉 '북한붕괴 및 통일 박두론'의 입장에서 '통일교육=당면한 통일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이라는 관점을 포기해야 한다.
- 즉 현재는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이자 “통일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단계”가 아

나라,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단계 인바, 이에 적절한 통일교육 내용 및 교과외 활동이 기획되어야 한다.

- 적어도 중기적으로 남북한이 적대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와 “사실상의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과외 활동은
 -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비록 현재는 적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준비시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국민여론에 지대한 문제를 끼치는 것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문제인바, 통일교육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한다.
 -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북한의 대내외 안보위협을 강조하여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와 자신감에 기초하여 대내외 안보문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비록 현재는 적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준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외 통일활동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기획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분단과 적대가 당장 극복될 수 없지만, 앞으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은 분단으로부터의 인간적 고통을 줄이고 상호 의사소통과 남북한 협력을 촉진하도록 준비시키는 방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우리가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불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또한 북한정권의 불인정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고통을 완화하며 그들의 생활고를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의 추진하는 데서 우리 국민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북한측과 다면적으로 접촉을 증대해나가더라도 그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자신감과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남북한에는 분명 적대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에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확대재생산된 적대감과 적대적 논리의 잔영과 잔재가 아직도 무의식적 습성적으로 기성세대 사이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 교육자 스스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과외 활동은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과장된 적대감과 적대적 논리를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책임자가 제시하는 대북 화해 협력 및 포용 정책의 논리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교과외 활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 6.25주간 설정과 행사, 땅굴 등 전적지 탐방, 북한관방문 등을 기획함에 있어서 그 활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이러한 교과외 활동은 기존의 이질감과 적대의식을 강화하기 보다는, 평화교육 및 화해 협력의 차원에서, 그리고 (비정치적 분야의 경우)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상대방을 용인하고 포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기획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6.25 기념주간” 보다는 “휴전기념 주간”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체결 기념주간”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기존에 실천되어온 여러 교과외 활동의 형태들을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키고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줄인다는 관점을 강조하도록 재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며,
 - 북한 주민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학생 자체적 모금 활동을 조직한다든지 또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여러 민간사회단체의 활동과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도 생각할 수 있다.

교과 외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유 양 식
광주예술고등학교

1. 서론

"함께 한 오천 년 헤어진 지 50년, 조국 통일 이룩하자"는 몇 년 전의 구호가 생각난다. 통일의 당위를 상당히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그 역사성과 문화의 동질성, 국토의 균형적 발전, 분단에서 비롯된 대립과 갈등의 해소를 통한 화해·협력, 이산 가족의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무한 경쟁의 지구화 시대에 민족 전체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우리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문화에 대한 창조적 계승, 세계 평화 체제 구축에 주역을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현실적 타당성과 희망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때 통일의 주역을 세우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학교 교육, 또는 그 외의 모든 통일 관련 교육, 행사는 매우 중요하리라 믿는다. 특히 여기서는 교과 외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제 발표문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통일 교육에 대한 풀어야 할 몇 가지 숙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논의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개인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려고 한다.

2. 주제 발표문에 대한 의견

1) 서론에서 '교과 활동을 통한 통일 교육을 통해 기른 지식의 바탕 위에서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 교과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확고하게 길러줌으로써 통일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도 꾀하는 한편 그 효과도 높여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와 방향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그런 방향은 학교에서 통일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한의 교과외 통일교육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조사하여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즉 현재 각 학교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외 통일 교육으로서 ① 시사 연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등의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 교육 ② 통일 전망대, 북한관, 땅굴, 전적지 방문 등의 현장 학습과 수련활동을 통한 통일 교육 ③ 6·25 주간 행사, 학예회 및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에서 통일퀴즈대회, 통일 토론회, 통일글짓기, 통일표어 짓기,

통일 시화전, 통일 미술전, 통일 연극회, 통일 체전, 통일 대행진 등의 학교 행사를 통한 지도 ④ 게시물을 통한 게시 교육과 통일관 운영 ⑤ 초청 강연, 영상을 통한 방법, 혼화를 통한 통일 교육 ⑥ 방학 과제를 통한 통일 교육 등 학교에서 통일과 관련된 교과외 통일 교육의 다양한 전형들을 잘 취합, 조사했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북한의 통일 관련 과외 교육을 잘 정리하여 보여줘 이해의 깊이를 줬다고 생각한다.

3) 이렇게 다양하게 교과외 통일 교육이 활성화되어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여섯 가지나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본인이 현장에서 이러한 통일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교육적인 목표의 성취는 미흡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요식적인 정례 행사화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과연구(1995. 3월호, 통일시대교육연구소)에 실린 1995년 통일시대 교육연구소 통일교육분과에서 서울 지역 중고생 840명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이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표 1>

	중학생	고등학생	계
① 꼭 이루어져야 한다	46%	42%	45%
②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28%	32%	28%
③ 안 되었으면 좋겠다	14%	13%	13%
④ 별로 관심이 없다	9%	10%	10%
⑤ 기타	2%	2%	2%

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에 45%가 답하고 ‘안되어도 좋다’ ‘관심 없다.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라는 응답이 51% 답했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통일 관련 교육이 아이들의 통일 의식 고취나 통일에 대한 신념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결론이다.

또 같은 설문에서

통일이 된다면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표 2>

	중학생	고등학생	계
① 보다 나아질 것이다	30%	15%	25%
②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24%	21%	23%
③ 사회 혼란이 심할 것이다.	38%	59%	44%
④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7%	5%	6%

6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통일이 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회 혼란이 심할 것으로 대답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염원과 달리, 통일 이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 관련 교육이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상을 분명히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징표라 여겨진다.

이런 결과에 비춰보더라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교과외 통일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전부 망라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우리의 통일 교육에 일정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4)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모두 다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그 전제들을 비교적 인정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 교과외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①특별활동 및 자치 활동의 적극 활용 ②학교 정기 행사의 다각적인 활용 ③이벤트성 행사의 주기적 개최 ④통일관련 내실있는 운영 ⑤방학 중 과제 학습의 적극 활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기왕에 각 학교에서 산발적으로든 정례적인 행사로서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잇는 방안이든 간에 그 실효성에 의문성이 제시되거나, 구태의연한 방식임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통일 동아리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등 자치 활동으로서의 방안 제시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사안으로 평가하고 싶다.

3. 통일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출발점

가)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의 설문 조사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교과서를 비롯하여 통일 웅변대회, 통일 글쓰기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

	중학생	고등학생	계
① 합리적이며 적당하다	17%	6%	14%
②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29%	35%	30%
③ 내용은 마음에 들지만 현실에 안맞는 것 같다	27%	27%	27%
④ 별로 관심이 없다	24%	31%	26%

이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에 대해 5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14%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학생이 경우는 긍정적인 면이 6% 밖에 되지 않아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과정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학생들이 통일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의식과 행동을 보이고 있나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에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통일 관련 교육을 지도, 지원할 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물적, 제도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강제로 떠나든지 많은 탄압과 억압, 심지어는 제자를 통한 수업 모니터링을 통해 교사들을 핍박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교사들이 나름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소신있게 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안되는 것이다.

위 설문조사에서

*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표 4>

	중학생	고등학생	계
① 많이 있다	7%	3%	6%
② 2-3명 정도	35%	41%	37%
③ 도덕, 윤리 선생님만	35%	12%	28%
④ 없다	22%	44%	28%

이는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통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표본이 서울의 학교인데 평균 교사 수가 40 - 80명을 잡을 때 대다수 교사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교육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점이겠지만 위에서 제기한 교육외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 통일 교육이 활성화 안되는 문제로 학교교육의 편향성에 있다는 것을 분석에서 간과한 점이다. 모든 교육이 과열 경쟁을 기본 모토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로 교육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교과는 물론 교과외 통일 교육이 활성화할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다는 것이다.

위 설문 조사 <표 3>과 <표 4>를 볼 때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통일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입시 경쟁 교육의 일반화에 따른 통일 관련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980년 중반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연합고사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북한이 금강산담을 만든 저의는 무엇이나 맞는 것을 골라라”이었다. 정답은 남한을 물로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한 반통일 교육의 표본이다. 이런 적대적인 반복의식을 심는데 학교 교육이 주요하게 기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 먼저 우리 사회의 편향적인 경직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의 문제와 관련되어 우리는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 발제문에서도 제기하고 있듯이 통일의 문제는 어느 특정 세력이나, 집단, 또는 특수 신분의 사람들만의 문제나, 이해가 아니라 민족 전체 성원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 다원화한 민주사회로 가속적인 진보를 한다는 것이 역사의 대세라고 할 때, 통일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성 속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광신적 반공주의가 일정 먹혀 들어가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인들이 상대편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상 시비를 걸고, 언론이 특정인에 대하여 사상 검중이니, 사상에 문제가 있니 하고 떠들어서는 결코 평화적인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런 논의와 관련되어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내용도 더욱 진향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도 통일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통일 교육 환경에도 진향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4. 통일 교육에 대한 방향과 기본 진제

가.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

1)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이성적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분단의 원인, 올바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 주변 정세, 통일의 원칙, 통일 이후의 조국의 미래상,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긴장 완화 방안, 화해와 협력 방안, 국제 평화에의 기여도 등 통일과 관련된 전반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균형감 있는 인식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과 관련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계몽"이라도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다양한 오해와 닫힌 정서들이 풀리리라 생각된다.

2) 통일 교육의 방향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로가 한 쪽을 적으로 규정하고는 통일을 얘기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 같은 상황이 제거되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흡수하는 방식의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반세기 전의 민족 상잔을 또 다시 역사 무대에 올려놓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학생 교육에서는 상대에 대한 어떤 적대감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바탕을 두도록 하되 역사적 진실은 가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광범위한 참여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원칙, 의견 개진의 자유 등을 쌍방이 정치,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에 이해를 갖는 주변 국제 정세가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쌍방이 자주적인 원칙을 고수하면 능히 극복되리라 생각된다.

4)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축 방안과 반드시 평화적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전쟁 당시의 피해와 50년이 넘는 갈등과 대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는지 소상한 자료를 통해 교육되어야 한다. 지금의 아이들은 물론 많은 일선 교사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이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육은 필수라 생각된다.

5. 바람직한 교과 외 통일 교육의 방안

가. 방향성

앞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너무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 행사 중심의 내용, 하향식으로 내리 매김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통일의 문제는 그 전반에 걸쳐 이성적이며 진실된 역사에 바탕한 인식의 확립, 평화와 공존에 바탕한 대안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런 바탕 위에서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내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외 통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드시 통일은 이뤄져야 하고, 그 주제는 우리 민족임을 일깨우는 내용이어야 하며, 서로가 화해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

주제 발표문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할 사항만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전제로는 교사들의 통일 관련 재교육과 연수가 필수 불가결함을 지적하고 싶다.

1) 학교 행사 - 주제 발표문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부 의미있게 수용하면서 “통일 주간 행사”를 신설하여 다양한 경연, 행사,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여기에서의 우수 내용은 광역교육단체로 수렴되어 학생은 물론 지도 교사와 학교에도 일정의 성과를 제공한다면 활성화의 기틀이 잡히리라 생각된다. 통일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통일 관련 내용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대회, 통일 노래극 만들기, 통일을 다룬 시, 소설,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등도 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통일 달력 같은 것을 만들어 분단과 통일과 관련된 제반 역사적 사실을 월일에 맞게 정리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일상적인 교과외 통일교육 방안으로 의미가 있겠다.

모든 교사들이 통일 관련 훈화나 통일 관련 시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학급 활동

- 통일 모듬 활동 조직 : 통일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급우들에게 제공하며, 통일과 관련된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한다.

- 매 학기말 학급잔치를 하면서 통일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한다.

- 통일을 여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 족구 경기(한반도 지도 모양의 경기장을 그리고 하는 족구 경기 - 학급당, 모듬별 경기)

* 우리 땅 가기 놀이(웃놀이의 윗판을 지도 모양으로 그리고 백두산에 먼저 도착하는 웃놀이의 변형)

3) 동아리 활동

- 통일 관련 동아리 활동 보장 : 북녘 어린이 돕기 모임, 북한 옥수수 심기 학생 연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임, 북한 바로 알기 모임, 통일 기행반, 북한 말 연구 모임, 통일 맞이 모임, 통일 노래 보급반 등

- 각 동아리의 통일 관련 활동 보장과 권장

* 글쓰기 연구 모임 - 통일 관련 글짓기

* 영상 모임 - 통일 관련 영상 제작 보급 등

정보화시대의 신문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NIE를 통한 통일교육)

송 병 관
순천고등학교

1. 문제의 제기

‘통일 시대를 여는가? 아니면 분단의 지속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분단 50여년을 훌쩍 지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왜 통일은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비록 쉽게 민족적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 공동체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각론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 좀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들어가면 심한 의견과 이해의 마찰을 일으킨다. 그리고 분단⁹⁾ 이래 남한과 북한은 각기 시대별로 다양한 통일 정책과 방안이 제시하였으나, 서로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상호신뢰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내세우지 않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직접 모색하는 길을 터놓아 신뢰회복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은 이상이며, 통일의 현실은 장애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미래 인류사회의 변화를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공통적인 사실은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인식이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정보화의 파도¹⁰⁾를 맞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통일의 호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 즉 통일장애의 가장 큰 이유인 북한의 개방이라는 변화여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의 진일보된 경제성장과 민족 번영의 공감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정보화시대의 민족 생존과 번영 전략차원에서 꼭 필요한 당위성을 가진다.

9)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의 과정은 지리적 분단(1945), 정치분단(1948), 민족분단(1953)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과정은 50-60년대의 국토통일, 70년대의 정치적 통일 80년대의 민족통일, 90년대의 분단현실 인정에 대한 남북한 합의에 주력한 통일에 관심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통일의 실현과정을 그 역순으로 통일정책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견해를 갖는다. 그러나 통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민족의 딜레마 내분의 6.25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기탁, “한국전쟁, 역사인가 현실인가”, 중앙일보, 1995. 7. 28, p. 7.) 이라는 견해다.

10) 한국정보문화센터, 새빛망(New Korea Net), (서울:1995), p. 4.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정보화사회 구상이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단의 홍보 책자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3단계로 45조원이 드는 사업으로 2015년에 완성되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33권을 단 16초 동안에 전송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목표인 21세기 초인류국가를 건설하여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이루게 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시대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미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통일 교육의 장이다. 근본적으로 정보화시대에 교육을 통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와 교육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정보화라는 점이다. 교육과 정보화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목표에 있어 다같이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 대중화라는 점이며, 방법에 있어 평등화라는 점이며, 수단에 있어 무형의 가치이지만 지대한 힘을 가진다는 것이며, 관심에 있어 어느 나라나 이 분야에 국가의 총체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며, 기본 축에 있어 인간화를 추구하며,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 과정은 평화적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의 민족 공동체적 생존의 장래를 보장받고 정보화 사회의 안목에서 예측하고 진단하는, 이를 통한 꾸준한 통일교육 과정에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제3공화국 시기에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 발전의 공적을 교육의 힘으로 돌렸듯이 그러한 신화를 또다시 통일을 하는데 교육의 공으로 돌릴 수 있다면 통일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우리 나라의 북한 금강산 방문 등-과 노력은 꾸준히 북한측이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힘을 기울이지만 북한측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교육 전반에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 속에 있는 학교 교육에서의 통일교육 또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상황에서 교과 외 시간을 통한 교육에 있어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다양성이 있는 교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 있는 여러 가지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있어서 아직껏 굳게 닫힌 문이지만 다양하게 통일을 위한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리라 하는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근간은 교과통일 교육이 기반이 되어 교과 외적인 다양한 행사를 교육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대발상을 정보화를 통한 통일교육에서 구하고, 고등학교 학교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NIE(Newspaper In Education)의 입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3. 정보화시대의 통일여건 성숙

1)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통일에 대한 정당성 옹호,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한 북한 실상과 이해와 파악을 통한 교육이 증대되고 있음. 북한의 개방화를 추구하며 유형·무형으로 요구되고 있음.

2) 정보화 시대의 통일 의미-국토 분단(1945), 정치 분단(1948), 민족 분단(1953)에 대해 이의 역순환을 거친 통일의 장점-창조적 통일(지리적 의미의 통일-정치적 의미의 국권의 단일화-경제적 의미의 민족 경제권의 통합¹¹⁾-사회적 관점의 국민의 통합-문화적 의미의 문화의 동질화-민족사적 의미의 국사의 정립, 더불어 하는 통일-함께 사는 통일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통일이 요구되고 있음. 우리의 통일정책의 변화가 있지만 북한의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¹²⁾되나 외부적 필연적 개방 정보유입으로 변화 촉진.

3) 정보화 시대의 통일 당위성-1. 민족 정서적 의미 2. 통일은 민족적 비원 3. 민족의 생존과 안전 4. 민족의 발전과 번영 5. 세계 평화에 기여 6.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견해에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21세기가 전개되리라는 통일여건의 성숙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

4. 정보화 시대의 통일교육 내용

1) 정보화시대의 통일환경 교육 시사점

최근 50년간에 국토가 분단된 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제외하고 냉전체제하에서 다양한 통일 방법으로 5개국¹³⁾ 모두 통일이 되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우리는 독일 통일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제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들’은 모두 15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독일 문제는 동시에 유럽 문제이다.
- ② 독일 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 지향적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 ③ 독일의 항구적인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 ④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 ⑤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 ⑥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 ⑦ 독일 국민들은 공동의 국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가지고 있다.

11)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p. 16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예측을 다음과 같이 했었다. 통일예측년도 2000년에 경제통합, 2010년에 정치통합, 2020년에 통일국가완성이라는 관점을 가졌다.

12) 『조선일보』, 1995. 6. 21, p. 27. 바딤 트카첸카(60년대 초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근무, 소련공산당 국제부에서 3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 연구)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 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함.

13) 윤경태외3인,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원, 1995), p. 36. 분단국의 통일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무력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거 역사의 경우에는 무력을 통한 통일방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50여년간 국가통일의 방법이 있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 ⑧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 척도 하에서 비롯된다.
- ⑨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 ⑩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 ⑪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 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 ⑫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 국민들도 독일 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⑬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나뉠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 ⑭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위의 목표이다.
- ⑮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위에 규정한 내용은 서독의 통일 교육이 기독교의 최대한 양보와 이해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교육 원리에 충실한 개방적인 교육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 반도의 분단 현실 및 우리의 통일 교육 체계에 시사되는 바 크다.

5.고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1) 윤리과 교과내용 외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

윤리과 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성공은 시간 확보¹⁴⁾와 교육과정의 편성과 지원기관의 협력체제, 통일 담당교사의 통일 교육 신념과 실천의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 분위기의 고조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6차 교육과정보다 통일교육 분야 면에서는 뒤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 관련 단원이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에 있어 통일교육의 양적 시간의 투여의 함량미달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교육 지원기관 협력체제로서의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¹⁵⁾의 발효와 통일교육 시행령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활발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재량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통일 교육관련 분야와 관련있는 교과목과의 연계교육도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적어도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교육 담당자로서 통일 관련 내용에 대한 시사 계기적 내용을 병행하여 교육을 하게 된다면 통일교육의 상승효과를 거두리라고 본다. 통일 교육의 성과는 현장성, 시사성과 계기성이 높다. 도덕과 교육의 연간 34시간의 확보 중 시간당 교과내용의 활동으로 5분 정도를 할애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시사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2)통일 시사반 및 윤리 교과 내용의 수업 방법

14) 7차교육과정의 통일 전담교과인 윤리는 도덕으로, 시간도 국민 공통 필수로서의 고등학교 1학년 1단위 34시간만 유효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지적 영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15) 통일부 <http://unikorea.go.kr/>에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과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16501호)이 있음

(1) NIE 과제학습

NIE¹⁶⁾란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이라는 의미이다. '오늘의 거울 내일의 역사'라는 신문¹⁷⁾은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최신의 정보원이면서 가장 정확한 확한 문장 구성을 통해 다양한 숫자의 활용, 각종 그래프의 활용 등 살아있는 교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한 주 동안에 일어난 통일관련, 북한관련, 우리 나라와 세계의 최근 통계자료를 해당 과제로 제작, 윤리교과 모듈별 시간에 발표하는 교육현장에의 적용하는 학습이다.

가) 목적

- ① 한반도 지역의 역사와 지리, 현재의 남북한 통일관련 문제와 일반적 지식의 확대
- ② 팀워크를 통한 자신감과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존재 사실 인식
- ③ 많은 사실 가운데서 자기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사고능력 배양
- ④ 많은 정보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 육성

나) 목표-NIE을 통한 모듈별 학습을 통하여

- ① 남북한지역의 역사와 지리, 현재의 남북한 통일 문제와 일반적인 지식을 확대하여 북한의 실상의 객관적 이해에 둔다.
- ② 시사적인 통일관련 사실을 통해 통일과제의 이해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식과 통일 실현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게 한다.
- ③ 국가와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민주 시민적 사고와 집단 행동능력을 배양하여 통일 국가 실현의지를 진작시킨다.
- ④ 통일이후의 민주시민적 수용성을 높이며, 한반도 정보 공동체 구축에 노력하는 자세를 함양한다.

다) 내용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자료를 미리 취사 선택하여

- ① 공동체 삶의 생활윤리
- ②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해와 정착

16) 중앙일보사,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입문편), 서울 : 중앙일보사, 1995. p2.

17)최근 여성잡지의 무게는 거의 2.1-3kg에 달하나, 신문은 300g 이내. 가벼우면서 날마다 새로운 다량(48면 특집의 신문이라 했을 때 조그만한 잡지 약 180 페이지 분량임)의 정보를 빠르게, 자세하게, 옛날 일도 찾을 수 있으며, TV보다 깊은 맛을 가지며,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문자로 배워지는 이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얻는 지식의 70%가 인쇄매체에 의한다고 볼 때 친숙한 내용으로 쉬이 문자정보를 얻는 습관과 능력이 배양된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③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객관적 이해
- ④ 자본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 ⑤ 사회 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의 해결방안을 지도

새 통일국가가 맞이하게 될 대내외적 도전과 극복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 ① 통일 민족국가의 정체성 탐구
- ② 민족 내부갈등 해소 방안의 이해 및 태도
- ③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지도
- ④ 통일후 전개되는 문제점을 탐색하여 통일국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족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배양에 목적을 두고

- ①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
- ② 북한사회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
- ③ 북한 주민을 이웃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로서의 인식
- ④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역할 인식(남북한 실체의 인식)
- ⑤ 해외동포를 포함한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인식
- ⑥ 민족공동체(남북한, 해외동포 포함)형성과정에서 예견되는 장애와 이의 극복 방안 등을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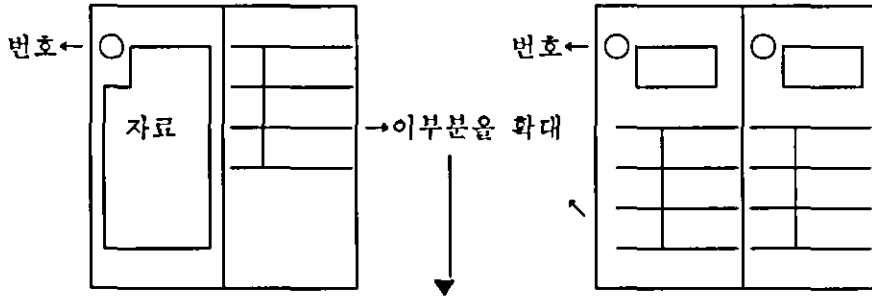
라)적용

- ① 1주간 발행된 신문들 가운데에서 통일관련, 북한관련, 우리 나라와 세계의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스크랩·복으로 만들어 해당 발표시간에 내용을 읽고 공동관심사로 함께 토론의 광장에 참여한다.
- ② 스크랩은 신문과 잡지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스크랩 만드는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규격 : 대학노트, 같은 크기 화보집도 가능
 - 출처 : 신문과 잡지
 - 번호는 달력에서 오려서 붙임
 - 스크랩내용:통일, 북한,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통계자료

*신문에 나타난 기사, 만화, 광고, 삽화, 독자투고, 사설 등 신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가 대상임

- 출전 : 신문이름, 년월일-신문면 수 반드시 기재함
- 자료제목 : 신문, 잡지 기사 제목을 씀.
- 소감은 자료를 읽고 간단하게 두줄로 씀
- 관련교과: 통일관련 교과목 해당 페이지를 적음
- 소감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자기의 소감이나 주장을 적음
- 유의사항 : 자료 발견 즉시 신중히 앞뒤면 고려하여 보고 마련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반드시 붉은색 싸인펜으로 독음을 쓸 것

*자료가 큰 경우(2페이지에 걸쳐 작성) 자료가 작은 경우(한페이지에 하나씩)



출전	중앙일보 ¹⁸⁾ .1999.11.4-4
제목	평양에서 또 이산가족 상봉
관련 교과	윤리교과서 p264
소감	남한의 이산가족 상봉……(10줄 정도로 내용과 소감을 씀)

③ 활용방법:모둠별 발표시 해당학생은 논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그 내용을 소개함(분량이 많을시 요약하여 말하고,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릴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교사는 토론의 논제로 등장하게 함-주어진 시간은 3- 5분)

마)평가

- ① 모둠별 운영평가는 모둠별 수업 전체 과정 중에 실시하고, 우수작에 대한 평가는 방학과제로 전시하는 기회로 소개함
- ② 평가지는 모둠별 수업 전개안에서 평가하고 평가시기는 매 수업시간에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바)NIE 수업 전개시 유의 사항

- ① 신문은 독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가치관과 도덕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록 사실이라 한지라도 비교육적 내용과 건강하지 못한 기사의 게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 ② NIE방법을 통한 교육으로 즉각적인 교육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 ③ 관심있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직접 신문사에 자기의 의견을 투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18)NIE교육은 우리나라 주요 신문인 중앙, 조선, 한겨레, 동아, 한국경제신문 등 여러 곳에서 왕성하게 실시하고 있다.

2). 교과와 학교과의활동의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

통일 교육에 관한 설문에서 밝혀진 대로 정보화시대의 미디어를 통한 통일 관련 정보획득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 강화의 측면에서 이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통일교육의 범위는 단지 교과적 의미로만 관계 있는 사회, 국어교과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인터넷 등과 같은 것을 보는 컴퓨터 관련 교과인 전산 관련 교과, 전산실 이용 동아리반 등 전 교과, 전 동아리 모임에 걸쳐 통일 교육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통한 멀티미디어의 세계, 최첨단시대의 초고속 정보망, 무궁화 위성,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와 닿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 산업 분야에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누구나 원하면 일방 통행적인 정보 통로가 아니라 쌍방간에 원거리 교감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문제점¹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시간을 막을 수 없듯이 세계화, 최첨단 정보화시대의 거대한 해일의 앞에 서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는 교육과 정보화시대에 적응과 부응한다는 면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상이 되겠지만, 부단히 변화하는 세계에 봉쇄적 길을 갔던 조선말의 비극을 아는 터에, 통일의 길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활짝 열려졌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날이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나라, 북한 관계 소식과 통일관련 소식을 우리가 늘 대하며 1일의 역사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감 있는 신문을 통해, 교육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폭넓으면서도 다양한 시간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VI. 결론

분단 50여년만에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 가운데 '통일'이라는 말에 어떠한 수식적 의미가 붙지 않는 글자 그대로 통일 교육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까지, 적사랑의 연애 편지 같은 통일정책만 내놓았지, 그 어떠한 서로간에 제대로 된 답장의 편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나다가, 그러함보다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화해협력, 평화라는 곳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가 인내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다른 분단국 나라들의 통일논리가 분명 우리의 풍토에는 100% 맞지는 않지만 그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었던 나라는 독일로, 그 통일방법이 '평화적 통일'이었다는 점이고, 그 '통일교육에 관한 지침'이 독일 그 나라의 통일에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고, 통일 후의 후유증에 대한 대비교육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바탕 아래 그에 따른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미디어 매체를 개방하고, 또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NIE는 이 점에서 평화통일 논리와 통일교육지침에 우리 나라 통일교육의 고등학교수준에서 긍정적이고, 수정적으로 받아들여진 통일교육지침은, 21세기를 앞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사되는 바 크다.

19)윤은기, 정보화 사회, 『한국인』, (서울 : 사회발전 연구소, 1995년 7월), pp. 72-76.에 의하면 '0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비인간화, 0 정보 격차에 따르는 권력, 또는 부의 격차 발생, 0 산업스파이, 해커와 같은 정보범죄의 증가 0 사생활의 침해, 0 정보 공유에 따르는 물개성화, 0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독자성 상실 0 정보 홍수 현상에 따르는 정보 공해문제 0 정보,기술 습득및 보안 유지에 비용 증가 0 신종 직업병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NIE를 통한 통일 교육에서 교과외 통일 교육 활동으로 실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에서 통일과 안보라는 이중 사회 구조로 북한을 보아 북한정권은 타도의 대상, 북한 국민은 동반자의 관계로, 그러나 통일논의의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 국민은 아니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동반자 관계라면 제도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적대자적 관계라면 이질화된 제도보다는 의식이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일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함 속에 정보화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점차 적대적 관계의 비평화적 관계 설정이 아니라 평화적이면서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은 국가차원의 실리추구의 국민행복 민족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속에 정보화시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위성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지식으로서의 통일의 확고한 이론적 기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후의 우리 나라에 대한 예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모둠별 활동의 NIE을 통한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의 이해를 돕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소개, 홍보하고, 통일의지를 굳게 하고, 민족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는 것 등으로, 합리적인 통일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교육은 왜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 이질화된 생각들을 통일국가의 공통의 사회공감대로 형성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배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내실 있는 꾸준한 통일교육-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화해와 협력, 평화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뉴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 나라의 통일 정책의 이해와 통일의지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민족공동체 통일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를 통해 통일민족국가를 창조하여 통일 준비 세대로서의 통일세대의 빛난 족적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 2) 『조선일보』, 1995. 6. 21,
-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7. pp85-86.
- 4) 윤경태외3인,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원, 1995
- 5) 윤은기, 정보화 사회, 『한국인』, (서울 : 사회발전 연구소, 1995년 7월)
- 6) 이기탁, "한국전쟁, 역사인가 현실인가", 중앙일보, 1995. 7. 28,
- 7) 중앙일보사,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입문편), 서울 : 중앙일보사, 1995..
- 8) 한국정보문화센터, 새빛망(New Korea Net), 서울:1995,

NIE관련 및 통일 관련 홈페이지 주소

1. 통일부 <http://unikorea.go.kr/>
2. 남북문화재 대표적 검색 <http://www.mct.go.kr/arirang/>
3.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4.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5. 중앙일보 <http://www.joins.co.kr/joongangilbo/>
6.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http://ku.kinu.or.kr/center/center.html>
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8.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iiop/>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평

권 충 복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속초등학교

최영표 교수님의 논문인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은 통일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가를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최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기에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하지만 발제자의 남북한 교과의 통일교육 현황과 문제점, 통일교육 수행기반 탐색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견해를 접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필자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평소 가지고 있는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반론보다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논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제자의 논문의 중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 이어서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발제자는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글에서

1. 서론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노력 부족과 연구 미흡,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제시
2. 남북의 교과의 통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3.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의 활동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논거 마련
4.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으로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논지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발제자는 통일은 당위론적인 접근 일변도를 벗어나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며 통일 성취에 대한 방관 및 소극적 입장 그리고 통일의 방법이나 준비 측면에서도 다른 이견이 있어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한층 충실히 이루어 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 학교 통일교육은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과 교과의 통일교육으로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교과활동(도덕,윤리)을 중심으로 지식 및 가치관을 심어 주는데 중점을 둬으로서 이론적으로 알고 통일에 대한 가치관은 형성시켜줄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통일 성취에 공헌하는 행동을 길러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에 동감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 되었을 때 통일 성취의 신념이나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남북의 교과외 통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자는

① 남한의 교과외 통일 교육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시사 연구반, 신문반, 방송반을 조직하여 통일에 관한 소식과 수집 및 투고함은 물론 그것들을 토론의 주제로 삼거나 통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둘째, 현장학습과 수련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통일 전망대, 북한관, 땅굴, 전적지 등을 방문하여 통일 의식 고취

셋째, 각종 행사를 통한 지도는 6.25주간 행사, 학예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통일 퀴즈대회, 글짓기, 표어, 시화전, 미술전, 연극회, 체전, 대행진, 편지 쓰기 등의 실시

넷째, 게시물 및 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 교육은 시사 소식, 북한 물품, 화보, 도서, 영상자료의 전시

다섯째, 초청 강연, VTR상연, 훈화 등을 통한 통일교육은 귀순 인사나 외부 전문가 초청의 강연 및 대화, VTR을 통한 북한 소식의 통일교육 실시

여섯째, 방학 과제를 통한 통일교육은 유적지 조사, 북한 관광 안내도 만들기, 감상문 쓰기, 통일 스크랩 만들기, 독후감 쓰기 등 6가지 활동으로 일선학교의 현황들을 소상하게 밝히 주었다.

이와 같은 남한의 교과외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여 주었는데

첫째, 통일교육 개념과 목표의 불투명

둘째, 통일교육의 비체계성

셋째, 교과외 통일교육의 접근 시각과 방법상의 차이

넷째, 교수·학습자료의 제한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참여도 저조와 연수기회 미흡

여섯째, 통일교육 지원 체계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발제자의 남한에 대한 통일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밝혀주었다. 특히 6가지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황들을 초·중·고별로 분석하여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현황들이 좀더 구체화 되었을 때 그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기에 용이하게 될 것이다.

② 북한은 통일에 대한 과외 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통일 관련 과외교육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로칭 활동을 통한 정치학습 조직으로 학교 사로칭 위원회, 초급위원회, 분조, 붉은 청년 근위대가 있으며

둘째, 소조활동으로 방과후 소그룹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셋째, 정치학습 활동으로 생활총화와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위 조직의 활동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가 우선 하여야 한다는 정치우선론적 입장과 개인은 집단만이 생명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집단주의적 관점이 철저히 배어 있으며 그것들이 생활화 되어 있다고 하였다.

남북한 교과와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통일의 길이 선뜻 열리기는 어렵다는 발제자의 입장과 같은 견해이다. 남한은 개인 주의적이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우선하여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집단주의적이고 공산혁명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우선론의 입장을 견지한 사회주의 성격을 강력히 띠고 있다고 보겠다.

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와 활동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할수 있는 기반에 대해 발제자는 교육과정의 편제로 본 교과와 통일교육과 재량활동에서의 통일교육에서 그 기반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교육과정의 편제로 본 교과와 통일교육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하였고, 교과상으로는 주로 국어, 도덕, 사회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량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기반이 되고, 특별활동에서도 자치활동,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도덕과는 초·중·고 모두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주당 시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하여 심화나 보충교육이 가능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과활동에서의 통일 관련 시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 하년별 통일관련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도덕	1학기	·	·	2	2	·	2	6
	2학기	·	4	·	·	2	·	6
계		·	4	2	2	2	2	12

위 표에서와 같이 도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시수가 총12시간으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일반 목표에서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자율적인 도덕생활 영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통일 대비교육에 중점을 두어 통일 국가 실현을 위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바른생활'(1,2학년)에서는 2학년 에서만 4시간, 도덕과에서는 각 학년마다 2시간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통일교육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된 교과마저 지도 시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지도 시기마저 매학기마다 맨 뒷부분(7월, 2월)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통일교육을 자칫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통일교육 연구학교나 학교 자체 통일에 관련된 연구수업을 공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재의 재구성으로 제재의 순서를 바

꾸어 지도할 수는 있겠다.

재량활동에서의 통일교육은 교과학습의 보충·심화를 위하고 범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앞에서 논평했듯이 통일교육은 교과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의 교과외 활동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재량활동 시간에 지도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대체로 영어, 한자, 예절, 음악 등을 지도하고 있다. 특별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을 지도한 학교도 거의 없다. 이와같이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통일교육을 지도할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원인을 통일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방관이나 소극적 태도 그리고 통일은 학교에서의 통일보다도 정치적 즉 사회적 통일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

3. 마지막으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자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특별활동 및 자치활동의 적극활용, 학교 정기행사의 다각적인 활용, 이벤트성 행사의 주기적 개최, 통일관의 내실있는 운영, 방학중 과제학습의 적극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내면화, 범교과적인 통합성 통일 주제 설정으로 모델개발, 자율적 참여 유도, 주기적인 행사 개최, 전문기관과의 연계운영을 제시하였다.

둘째, 특별활동 및 자치활동의 적극활용은 통일반 또는 통일 동아리 육성과 신문·방송 매체 관련반의 통일문제 관심 갖기를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 정기 행사의 다각적인 활용은 6.25행사, 학예회,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행사시에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넷째, 이벤트성 행사의 주기적 개최는 북한 영화, VTR상연, 자료 순회전, 귀순자 강연, 간담회의 주기적 개최, 북한 변방 기행단 조직 운영, 통일교실의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통일관의 내실있는 운영은 통일관 운영, 통일교육 센터 홈페이지 활용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방학중 과제학습의 적극 활용으로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지도록 한 가지 이상의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여였다.

발제자의 교과외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필자는 몇 가지 보충하고자 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들이 통일 의지 및 신념의 내면화와 행동화라고 볼 때 발제자는 교과외 활동은 통일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론 부분에서는 행동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필자는 통일교육은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 시킨후에 그것들이 행동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통일교육은 초·중·고별로 어디까지 지도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다.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때 교사들은 어디까지 지도가 되어야 할지 당황할 때가 있다. 특히 발제자가 밝혔듯이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워 통일교육 지도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어떤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가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고 볼 때 통일교육외에 많은 교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으로 인하여 교과의 통일 교육중 어느 한가지라도 지도할 시간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6.25행사시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정규적 학교행사시에는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지도할 기회는 있으나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도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 정규적 학교 행사에 포함시켜 지도한 통일 교육은 일회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 북한 영화나 VTR상연 등은 아침 방송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 방영 시간도 많아야 5분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중에 부담없이 통일의 길, 통일 전망대, 남북의 창 등을 시청하고 간단히 감상문을 써 보도록 한다든가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도록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며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은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사는 통일' 또는 '공존의 통일'로 가야한다고 본다. 또 완전한 통일이란 단순히 정치, 경제 체제에서의 단일화를 이룩했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가치관 등에서의 이질성이 극복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스스로 깨달도록 설득 시켜야 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감상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좋다는 심리적 이중적 태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교육 조건의 조성이 급선무인데 교육의 자주성 문제로서 교육 주체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주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자료를 제시하여 우선 '북한을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